

최석인 전 아제르바이잔 대사 초청강연회:

시베리아 잠재력을 생각하다: 한국과 시베리아 간 협력 가능성

지난 2018년 12월 6일(목)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러시아센터는 최석인 전 주아제르바이잔 대사를 모시고 "시베리아의 잠재력을 생각하다: 한국과 시베리아 간 협력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최석인 전 주아제르바이잔 대사는 이르쿠츠크 총영사를 역임하던 시절의 경험을 상기하며, 시베리아의 무한 잠재력에 대해 피력했다.

시베리아는 행정적으로 시베리아 연방관구와 극동 연방관구로 구분된다. 이 지역들 중 자원을 언급할 때는 크라스노야르스크, 사하공화국, 이르쿠츠크 지역을 주로 다루며, 이 지역은 에너지, 광물, 수력, 관광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자원을 지닌 곳이다. 특히 이르쿠츠크는 동시베리아의 중심도시로, 70만 정도의 인구가 구성되어 있으며, 소련 붕괴 이후 우리나라는 자원외교에 뜻을 두고 이곳에 총영사관을 설치했다.

그러나 소련 붕괴 2-30년인 지난 현재에도 한려간 광물자원 관련 사업은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지 못했는데, 이는 이 지역에 사회 간접자본이 미비하며, 설사 이를 정비한다 해도, 연교차가 80도에 이르기 때문에 철도 등의 유지보수에 막대한 자본이 들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척박한 기후로 인해 젊은이들, 특히 교육받은 엘리트층의 인구 유출이 컸던 것도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기도 했다.

유럽 투자자들은 이러한 이유로 시베리아 지역의 투자를 꺼려하고 있으며, 현재 이 지역의 외투자본 투자는 대부분 중국, 인도, 일본이 주를 이룬다. 그 중 특히 최근접국인 중국의 지분이 크다. 중국은 동시베리아의 가스를 30년간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는 중국 내 전체 전력의 10프로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르 지역을 관통한 이 가스관 설치의 세계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사업이다.

한려간 사업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는 사하공화국에 대한 투자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지나치게 대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소규모의 종목들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 강연자는 예측했다.

본 강연이 끝나고, 뒤이어 객석에서 질문이 이어졌다. 윤소현(국제대학원)은 러시아 연방정부가 유럽 자본을 동북아 국가들의 그것보다 더 중시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강연자는 러시아 동토의 인프라가 빈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대한 서구의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 진단했다.





시베리아에서 가장 큰 도시인 노보시비르스크가 아닌, 이르쿠츠크에 총영사관이 설치된 연유에 대해 질문한 이금강(아시아연구소)의 질문에, 강연자는 에너지와 광물자원 더욱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이 부문 사업을 더욱 긴밀히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최아영(아시아연구소)이 러시아 동부의 지하자원에 대한 수입 중 어느 정도가 지방정부의 수입이 되는가와 러시아의 기초과학 기술을 토대로 한러 간 협력하는 것에 대한 전망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지하자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가스프롬이나 로스네프트와 같은 국영기업의 본사는 모스크바에 있기 때문에, 수익 분배에 관한 문제는 연방 정부의 결정을 따르며, 10-15% 정도의 수입만이 지방정부의 몫이 된다고 답했다. 또한 기술과 관련해서는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톰스크 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만, 석유 개발에 중점적이며, 우주과학과 관련된 기술은 모스크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베리아가 한국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지역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영토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한정숙 교수(서양사학과)는 쿠릴열도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 대해 질문과, 늘어나고 있는 러시아 내 중국인의 비율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생각, 그리고 시베리아 거주인들의 연방정부에 대한 반감과 지역주의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영토에 대해 물적 이익이 있을지라도 타국에 넘기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또한 실제 시베리아 지역에 중국인들로 파악되는 인구 중 많은 부분이 몽고계나 국경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구에 대한 시베리아인들의 직접적인 반감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한 시베리아 지역의 복지가 나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나 총리가 직접 그리고 자주 방문하여 민생을 챙기는 제스처를 취하기 때문에 향후 심각한 지역주의가 대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가스관에 대해, 남북 합작으로 러시아의 가스관을 연결하고 가스를 수송하는 사업은 어떠한지에 대한 강정원 교수(러시아연구소장)의 질문도 이어졌다. 그러나 북한의 상황에 대해 정확한 파악은 어렵고, 가스관을 설치하는 것 또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 내 수력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직접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그 방안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투바 지역의 마약 문제 및 치안 등의 문제에 대한 이선복 교수(고고미술사학과)의 질문에 대해 강연자는 실제로 투바는 시베리아 내에서 가장 빈곤하고, 젊은이들의 유출도 가장 심각하며, 폭력과 음주 문제 또한 크지만, 이에 대한 개선의 의지는 약해 보인다고 말했다.



러시아연구소·러시아센터

Institute for Russian, East European & Eurasian Studies

РУССКИЙ ЦЕНТР ФОНДА РУССКИЙ МИР

